

이낙연 “10일 광주서 필승 결의대회”

출마 지역구 발표 예정... 서구를 유력 여론조사서 타 신생 정당에 밀려 ‘꼴찌’ 지도도 조국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順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당 총선 출정식에서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공개한다. 이 공동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후 3시 광주 김

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 그 자리에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 경선 종료 후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마냥 늦출 수 없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민주당 경선이 제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의 출마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율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그는 지난 4일 광주 지역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출마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타 신생정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은 상태다. 실제 내일이 4·10 총선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제3지대 신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조국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

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신당을 뽑은 응답자는 3%였다. 개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2%였고, 새로운미래를 택한 사람은 1%였다. 3개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0.5%p 신뢰수준에서 ±3.1%p) 내였다.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광주·전라(8%), 50대(7%), 진보 성향층(6%) 등에서 평균 지지도보다 높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서울(4%), 18·29세(4%), 학생(7%) 층에서, 새로운미래는 중도층(3%)과 자영업자층(3%)에서 지지도가 각 당의 평균 지지도를 상회했다. 광주·전라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4%를,

호남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3%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국신당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였다. 개혁신당은 3%, 새로운미래는 2%로 집계됐다. 특히 조국신당이 비례대표 의원 투표와 관련해 얻은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지지도(14%)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개비시장을 찾아 양천구갑에 출마한 황희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

터를 다음 달로 넘겨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약에는 1588-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료 전액 무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 수단이자 고객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김진수기자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경선 환영”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 5일 오후 당 최고위가 권향엽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공천을 취소하고 ‘서동용-권향엽’간 2인 경선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일 지역의 전략 선거

구 지정과 관련,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경선 지역으로 재의결했다. 후보 선정 방식

은 국민경선 100%다. 서 의원은 “공천 배제 소식을 듣고 염려와 응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당의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낙천자 ‘극렬 반발’ 안보이는 與공천... 집권당 어드밴티지?

현역 35명 물갈이에도 잠잠... 일부 공천 확정된 경쟁자 지원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낙천한 전·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6일 현재 불출마나 경선 패배, 컷오프 등으로 ‘물갈이’ 대상이 된 현역 의원은 3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수용하고, 일부는 후보로 확정된 공천 경쟁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 양천갑에서 탈락한 비례대표 초선 조수진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한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의원은 앞서 구 비대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걸어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천 결과를 받아 든 전직 의원들도

대체로 ‘원팀 모드’로 전환했다. 물론 반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날 컷오프된 유경준(서울 강남병),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강남병에는 당 영입 인재이자 ‘갤럭시성공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우선공천을 받았고, 달서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공천됐다. 이재의 의원(3선)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이 국민공천 지역으로 지정되자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를 실제 결행하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 현역 의원의 첫 ‘공천 불복’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일부 현역 중진들이 탈당 후 무소속 또는 당적변경 후 출마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편이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대 총선 때와 비교해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홍준표, 권상동, 윤상현, 김태호 등 전·현직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집권 3년 차 여당과 야당 시절의 공천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현직 의원의 경우 선거 이후 장관으로 임각하거나 공기업에서 고위직 자리를 받는 등 선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있다. 즉, 여권 핵심부가 인사권을 활용한 집권 여당 어드밴티지(이점)를 활용해 낙천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이라 해석인 셈이다. /연합뉴스

진보당, 野비례 후보 3명 추천

영광 출신 손술·함평 출신 전종덕 포함

진보당 장진숙 공동대표, 손술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진보당은 6일 “지난 1·5일 권리당원이 참여한 비례대표 후보 투표 결과, 득표 순대로 장 공동대표, 전 전 사무총장, 손 수석대변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0명의 비례 명부 중 진보당에 3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고 이들 후보를 당선가능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진보당 후보들은 앞 순서를 받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영광에서 나온 손술(2) 수석대변인은 이화여



손술 전종덕 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전종덕(52)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함평 출신으로 간호사이자 노동 전문가이며 민주노동당 최연소 전남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